

# AS DUSK DESCENDS



JU YUWOL

## 목차

1-1장. 모종의 뱀파이어 로맨스

1-2장. 모종의 뱀파이어 로맨스

1-3장. 모종의 뱀파이어 로맨스

1-4장. 모종의 뱀파이어 로맨스

2장. 독특한 의뢰인

## 1-1장. 모종의 뱀파이어 로맨스

해가 지평선 아래로 누엿누엿 넘어가면서 런던의 가을 하늘을 주홍빛과 분홍 빛으로 물들였다. 선선한 바람이 모던한 카페 바깥의 낙엽을 바스락거렸다. 마지막 햇빛이 사라지자, 밀드레드 에반스는 카운터에 기대어 앞치마에서 커피 찌꺼기를 털었고 신선한 페이스트리 냄새가 공기 중에 퍼졌다.

이 대형 프랜차이즈의 널찍한 지점은 도시의 끊임없는 소란 속에 편안하게 자리 잡고 있었고, 매력적인 분위기와 환영하는 조명은 라떼나 간단한 요깃거리를 통한 휴식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안식처 역할을 했다. 밀드레드는 수년 동안 다양한 직업을 통해 표류한 후 이곳에서 안식처를 찾았다. 모두가 카페 매니저가 되는 것을 장래희망으로 고려하지는 않겠지만, 그녀에게 그것은 가시적이고 만족스러운 목표였다.

한숨을 돌리던 찰나, 입구의 종소리가 그녀의 짧은 휴식을 깨뜨렸다. 그녀의 황갈색 눈은 문이 활짝 열리고 낮익은 인물이 들어오는 것을 알아차렸다. 밀드레드는 일한 지 한 달 만에 독특한 주문을 하는 이 독특한 인물을 알아보게 되었다. 그는 그녀가 일하고 있는 거의 매일 방문했으며 일반적으로 거의 같은 시간에 도착했다.

키가 크고 창백한 신비의 공기가 두 번째 피부처럼 그에게 달라붙는 것 같았다. 그의 검은 머리는 흐트러져 있었지만 어쩐지 그의 수수께끼 같은 매력을 더 해주었다. 그는 마치 침대에서 굴러 나온 것처럼 구겨지고 잠든 것처럼 보였지만 항상 흠 잡을 데 없이 정장을 입었다. 또 다른 부조리한 디테일은 그의 손목시계

로, 격식을 갖춘 수트보다 아웃도어 모험에 더 적합한 대답하고 견고한 모델이었다.

그 남자에게는 특이한 루틴이 있었다. 그는 메뉴에서 가장 저렴한 에스프레소를 주문하고 “커피 빼고, 빈 컵만”을 요청한 다음 카페의 가장 구석진 곳에 들어박혔다. 그곳에서 정확히 한 시간 동안 그는 가지고 다니는 많은 문서 중 하나를 훑어보곤 했다.

일부는 학술 서적이거나 인쇄된 연구 논문이었으며, 그들의 텍스트는 종종 영어가 아닌 독일어 또는 기타 익숙하지 않은 스크립트로 보였다. 그는 이것들을 훑어보곤 이따금 만년필로 공책에 낙서를 끄적였다. 그러나 그의 관심은 학문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그는 또한 고전에서 장르 소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읽을거리를 정독했다. 장르를 가리지 않는 절충주의적인 취향을 갖고 있는 것 같았다. 때때로 그는 이 디지털 시대의 다른 모든 사람들처럼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며 작고 빛나는 화면을 아무렇게나 탐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 그는 자신의 작은 세계에 빠져 책과 논문을 훑어보고 있었다.

오늘, 그 흥미로운 남자가 카운터에 다가가자 밀드레드는 친절한 몸짓을 보이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그가 주문하기도 전에 장난스럽게 말했다. “그냥 빈 컵이죠?”

순간 남자는 그녀의 다정한 접근에 허를 찔린 듯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그러나 그때, 그의 입술은 그의 눈에 닿지 않는 작은 미소를 형성했다. 그가 대답했다. “네, 고맙습니다.”

밀드레드와 그녀가 곧 필립이라는 이름을 알게 된 수수께끼의 남자는 밤마다 방문하는 동안 잡담을 나누기 시작했다. 필립은 자신에 대해 거의 밝히지 않았으며 대부분의 개인 정보를 비밀로 유지했다. 그러나 그는 밀드레드와 수다를 떨며 일상적인 대화에서 지식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즐기는 것 같았다.

어느 날 밀드레드는 카페에 들어서면서 그의 독특한 주문 습관에 대해 물어보기로 했다. “왜 항상 아무것도 마시지 않나요?”

필립은 입가에 열은 미소를 머금은 채 그저 어깨를 으쓱했다. “전 절대... 커피를 마시지 않아요.” 그는 장난에 가까운 말투로 고백했다.

“하지만 매일 커피숍에 오잖아요.” 밀드레드는 장난스럽게 지적했다.

그 말에 필립이 웃었다. “음, 그렇다고 좋은 카페가 싫다는 건 아니에요. 이곳이 짧은 휴식을, 특히 독서를 즐기기에 완벽한 장소라고 생각하거든요. 커피 향, 은은한 조명, 나지막한 말소리…”

“아, 완전히 이해했어요. 좋은 분위기는 정말 중요하죠.” 그녀가 맞장구쳤다. “당신의 저녁 방문을 감안하면 이곳이 아마 최고의 장소겠네요.”

“바로 그거예요! 늦게까지 문을 여는 몇 안 되는 카페 중 하나니까요. 하지만 그뿐만이 아니에요. 반가운 얼굴을 보는 건 언제나 좋은 일이거든요.” 그의 눈은 가볍게 애타게 반짝이며 밀드레드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그러고선 그는 그녀에게 물었다. “다른 걸 주문한다면 무엇을 추천하시겠어요?”

허를 찢린 밀드레드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플랫 화이트?” 그녀가 제안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거예요.”

그의 말대로 필립은 플랫 화이트를 주문했다. 한 시간 후, 그는 손대지 않은 머그를 밀드레드에게 돌려주었다. “이제 당신 거예요.” 그가 그녀에게 윈크하며 말했다. 커피는 끓였을 때처럼 신선하고 여전히 따뜻했다.

밀드레드는 깜짝 놀랐다. “뭐 했어요? 어떻게 아직도 따뜻한 거죠?”

“셋.” 필립은 손가락으로 입술을 눌렀다. “큰 소리로 말하면 커피가 식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을 수도 있어요.” 그는 분명히 그녀를 놀리고 있었지만 그의 장난스러운 태도는 전체 대화를 그들 자신의 특별한 비밀처럼 느끼게 했다.

그날부터 빈 에스프레소 잔 대신 밀드레드를 위한 음료를 주문하는 것이 그들의 작은 전통이 되었고, 그들의 우정이 커져가는 데 또 다른 흥미로움을 더했다.

몇 주간의 이야기와 웃음을 나눈 후에, 밀드레드는 믿음의 도약을 할 때라고 결정했다. 어느 날 저녁 필립이 카운터로 다가갔을 때, 그녀는 심호흡을 하고 물었다. “저기, 필립, 혹시 이번 토요일에 시간 있나요? 우리가 제대로 된 데이트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필립은 놀라서 눈이 휘둥그레졌고, 밀드레드는 그의 신경질이 그를 뒤덮는 것을 보았다. 불안한 마음에도 누군가가 자신에게 손을 내밀어 자신을 둘러싼 장벽을 뚫기를 기다렸다는 듯 그의 눈에는 희망의 빛이 역력했다.

필립은 잠시 생각에 잠긴 후 밀드레드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네, 정말 그러고 싶어요. 고마워요, 밀드레드.”

밀드레드는 이 순간을 예상하고 있었음을 암시하는 각오로 재빨리 주머니에 손을 뻗어 이미 전화번호를 적었던 냅킨을 꺼냈다. 그녀는 그것을 필립 쪽으로 미끄러뜨렸고, 그녀의 뺨은 약간 붉어졌다. “이건 제 번호예요. 알다시피, 일정이랑… 여러가지를 위해.”

필립은 냅킨을 내려다보다가 휴대폰을 꺼내 재빨리 무언가를 입력했다. 밀드레드의 휴대전화가 주머니에서 윙윙거렸을 때, 그녀는 휴대전화를 꺼내 알 수 없는 번호에서 온 메시지를 보았다. ‘:’

그녀와 필립은 따뜻한 미소를 주고받으며 기쁨의 순간에 눈을 고정했다. 그녀의 마음은 행복으로 부풀어올랐고, 그들의 다가오는 데이트에 대한 기대감이 밀려왔다. 그리하여 그들의 회오리 바람 로맨스가 시작되었다.

\* \* \*

밀드레드는 필립과의 첫 데이트를 준비하면서 흥분을 감출 수 없었다. 마지막 화장을 마친 그녀는 거울에서 한 걸음 물러나 자신의 모습을 살폈다.

가장 아끼는 스윙 드레스 위에 부드러운 카디건을 입은 젊은 여성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다. 약간 붉은 기를 띤 밀짚 색의 반목음 머리가 어깨와 가슴 중간에서 부드럽게 흘러내렸고, 계란형 얼굴 위에 놓인 크고 동그란 눈이 자신감으로 깜빡였다. 전반적으로 그녀는 꽤 예뻐다. 그녀도 그것을 알았다. 그녀는 데이트를 위해 완벽하게 무장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며 밀드레드는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함께 저녁을 보내는 동안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대화와 경험을 간절히 기대했다. 의심할 여지 없이 흥미롭고 독특한 모험이 될 것이다.

최근의 우울한 날씨와 비관적인 예보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데이트 저녁은 완벽한 날씨로 빛났다. 밀드레드는 전날 필립이 문자 메시지를 통해 “날씨에 대해 걱정하지 마세요, 분명히 괜찮을 거예요”라고 장담했던 것을 기억했다. 그녀는 희망사항에 불과하다고 그것을 무시했지만, 저녁의 산들바람과 맑은 하늘 아래로 나오면서, 어떻게 그가 그렇게 확신할 수 있었는지 궁금했다.

그녀가 약속된 만남의 장소에 도착했을 때, 석양은 따뜻한 장밋빛 빛깔을 띠던

전체에 드리웠다. 마침 마지막 햇살이 희미해지자 필립이 나타났다.

그녀는 그를 보고 깜짝 놀랐다. 그녀가 익숙해진 구겨진 수트와 헝클어진 머리는 사라졌다. 이제 그의 머리는 단정하게 빗어졌고, 그는 여느 데이트에 나선 청년처럼 편안하고 스타일리시한 옷차림 — 캐주얼한 블레이저와 면바지, 깨끗한 운동화 — 을 하고 있었다. 그는 한 발에서 다른 발로 체중을 이동하면서 거의 긴장한 것처럼 보였다.

“와, 드디어 양복이 아닌 다른 옷을 입었군요!” 밀드레드는 놀라서 소리쳤다.

필립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머뭇거리며 물었다. “싫어요?”

“아뇨, 아뇨, 마음에 꼭 들어요!” 그녀가 그를 안심시켰다. “그냥 이렇게 옷을 입은 당신을 처음 보는 것뿐이에요. 정말 멋진 변화네요.”

필립의 얼굴에 안도의 미소가 떠올랐고, 그는 시계를 내려다보며, “글쎄, 당신이 좋아해줘서 기쁘요. 예약에 늦고 싶지 않다면 가야 해요.”

그가 내려다보았을 때, 밀드레드의 시선은 그간 자주 보았던 그 힘준한 시계로 따라갔다. 그것이 항상 일몰과 일출 시간을 표시한다는 것을 깨달은 그녀는 그가 항상 날이 갈수록 점점 빨리, 해가 진 후에 카페를 방문했던 것을 떠올렸다. 심지어 데이트 약속 시간도 해가 진 직후였다.

“밀드레드?” 필립의 목소리가 그녀의 생각을 깨뜨렸다.

그녀는 눈을 깜박이며 그를 올려다보았다. “당신의 시계는 항상 일몰과 일출의 시간을 보여주지 않나요? 당신이 카페에 오는 시간과 관련이 있나요?”

필립은 잠시 망설이다가 작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관찰력이 뛰어나군요. 대단한데요. 당신이 언제 그 이유를 알아낼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그녀가 그 수수께끼를 더 파헤치기도 전에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근처 골목에 자리잡은 아늑한 식당으로 그녀를 안내했다. 그들이 안으로 들어서자 다양한 요리들의 맛있는 향이 그들을 향해 흘러나와 부드러운 대화와 웃음소리가 뒤섞였다. 필립의 시계의 수수께끼와 그의 불가사의한 타이밍은 밀드레드의 마음에서 사라지고, 앞으로 다가올 저녁의 흥분으로 대체되었다.

그들은 식당 뒤쪽 근처의 외판 촛불이 켜진 테이블로 안내되었다. 밀드레드는 주위를 둘러보며 그 곳의 세련된 장식과 편안한 분위기를 감상했다. 필립이 그녀의 승인을 눈치채고 말했다. “마음에 든다니 기쁘네요. 여기에 대해 좋은 이야기

를 들어서 첫 데이트에 어울릴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메뉴는 세계 각국의 다양한 요리들을 선보이는 미식 투어였다. 메뉴를 숙독한 후, 밀드레드는 푸짐한 파스타 요리를 선택했고, 밀드레드가 맛있게 먹었는지 확인하는 데 더 관심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필립은 간단한 샐러드를 선택했다. 그들은 친절한 웨이터의 추천으로 레드 와인 한 병을 식사에 곁들이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수다를 떨면서 와인을 훌쩍이며 식사를 즐겼다. 밀드레드는 필립이 약간 긴장하거나 그들의 대화에 지나치게 집중하는 것 같다는 것을 눈치채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칼로 샐러드를 잘게 썰고 있었고, 먹는 것보다 그 일에 더 집중했다. 그녀는 그 광경을 보고 킬킬거리는 것을 참아야 했다.

“그 샐러드를 새에게 먹일 계획인가요, 필립?”

밀드레드는 필립이 그의 샐러드가 이제 거의 먹을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멍하니 발견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이것이 재미있게도 사랑스럽다는 것을 알았다.

“그럼 필립,” 밀드레드는 식사 대실폐에서 초점을 바꾸기로 결심했다. “당신 나이가 궁금했어요. 물어봐도 될까요?”

필립은 머뭇거렸다. “글쎄요, 밀드레드, 저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나이가 좀 많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정확히 몇 살이길래?” 밀드레드는 눈썹을 치켜올렸다.

필립은 직접 대답하는 대신 질문을 돌렸다. “어때요? 제가 몇 살 같나요?”

“글쎄요, 겉보기엔 제 또래, 그러니까 아마 20대 초반처럼 보이는데, 잠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20대 중반처럼 조금 더 나이가 드셨을 수도 있겠네요.” 밀드레드는 그의 반응을 가늠해 보았다.

그녀의 대답에 필립의 미소는 조금 더 어색해졌고, 거의 긴장되었다. 밀드레드는 더 앞으로 나아갔다. “30세 이상?”

그의 표정을 보고 그녀는 재빨리 기어를 바꾸었다. “잠깐, 당신 결혼했어요?”

필립은 진심으로 당황한 것처럼 보였다. “뭐라고요? 장담하는데, 전 결혼반지를 빼고 다른 여자들과 수다 떠는 부류가 아니에요.”

밀드레드는 그의 대답에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글쎄요, 아내를 어딘가



에 숨기지 않는 한, 우리는 괜찮은 것 같아요. 어차피 젊어 보이니까 나이는 상관 없어요.”

필립은 웃음을 터뜨렸고 미소 끝의 긴장을 풀었다. 밀드레드의 가벼운 마음에 이끌려, 그들의 대화는 더 편안한 영역으로 바뀌었다. 그들 사이에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고, 식당 주변의 조용한 수다와 매끄럽게 어우러졌다. 그의 셀러드는 손도 대지 않은 채로 남겨졌고, 이야기의 매력적인 교환 속에서 망각되었다.

그들이 달빛이 비치는 거리를 거닐며 식당을 나올 때, 그제서야 밀드레드는 그녀가 그의 정확한 나이를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녀는 그냥 넘어가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자신의 마음을 사로잡은 수수께끼 같은 남자의 표면 밑에 숨어 있는 비밀을 언젠가는 알게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일단, 그녀는 그들의 첫 데이트의 마법과 앞으로 다가올 모험의 약속을 즐기는 것에 만족했다.

## 작가의 말

필립과 밀드레드의 이름은 W. 서머싯 몸의 고전 영문학 “인간의 굴레에서(Of Human Bondage)”(1915)의 등장인물에서 따 왔습니다.

필립의 시계는 카시오의 디지털 손목시계 브랜드 G-SHOCK의 RANGEMAN을 모델로 했습니다. 이 모델에는 실제로 일몰과 일출 시간을 표시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 1-2장. 모종의 뱀파이어 로맨스

첫 데이트 다음 날, 필립은 여느 때처럼 카페에 들어섰고, 문 위에 달린 종은 그의 도착을 알렸다. 전날과 마찬가지로 그는 더 이상 구겨진 정장 차림이 아니었다. 캐주얼하면서도 스마트한 옷차림이 마른 체격과 잘 어울렸다.

“그래서 결국 그 구겨진 양복을 그만 입기로 결정한 건가요?” 밀드레드는 놀리는 듯한 미소로 그를 맞이했다.

필립은 단정하게 빳은 머리칼 사이로 손을 내밀며 킬킬 웃었다. “글쎄요, 전에는 외모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하지만 잘 보이고 싶은 특정한 사람이 있다면 왜 안 될까요?”

잠시 후, 그는 뺨이 붉게 상기된 채 말을 이었다. “당신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해도 될까요?”

밀드레드는 소리내어 웃었다. “왜 안 되겠어요?”

그녀의 대답에 그의 표정이 밝아졌다. “그래서…” 그는 희망에 찬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다. “다음에 언제 한가해요? 그럼… 또 데이트를 할 수 있을까요?”

그녀의 대답은 즉각적이었다. “금요일과 토요일은 한가해요.” 그녀는 그에게 눈을 찡긍하며 덧붙였다. “아, 그리고 참고로 제 일은 11시에 끝나요.”

필립은 자기 뒤로 들어오는 다른 손님을 힐끗 쳐다보며 미소를 지으며 속삭였다. “문자로 마저 얘기해요.”

그렇게 그들의 데이트는 계속되었다. 한 번, 두 번, 그리고 몇 번 더. 그렇게 필립 켄킨스와의 로맨스가 꽃을 피웠다.

그들이 사귀 지 약 3개월 후, 밀드레드는 필립의 부엌에 있는 작은 테이블에 편안하게 자리를 잡았다. 그는 연습에서 오는 여유로움으로 지글지글 끓는 혼합 물을 휘저으며 능숙하게 볶음밥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를 지켜보면서 목걸이를 무심코 손가락으로 빙빙 돌렸다. 그것은 필립의 선물로, 중앙의 짙은 붉은 돌과 희미한 빛에도 반짝이는 작은 돌로 장식된 예쁜 조각이었다.

언젠부터가 필립의 아파트에 자주 초대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일상이 되었다. 그는 의외로 요리를 잘했고, 앞에 요리가 놓일 때마다 밀드레드의 얼굴에 비치는 기쁨을 즐기는 것 같았다. 그의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은 그녀가 다른 두 명의 생판 남들과 공유하는 비좁은 아파트에서 탈출하는 반가운 탈출구였다.

그녀는 여전히 멍하니 목걸이를 돌리면서 물었다. “이게 진짜 보석인가요? 비싸지 않나요?”

“네, 가넷이에요. 일설에 따르면 밤에도 빛난다고들 하죠. 우리가 늦게 만나는 걸 고려하면 어울리는 것 같아요.” 필립은 프라이팬에 시선을 고정한 채 대답했지만 그의 말은 잘난 척하는 만족을 전달했다.

“당신의 일몰 후의 독특한 스케줄 때문에.” 그녀가 중얼거렸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의 가용 시간은 해가 진 후로 제한되었고, 낮에 그의 통신은 종종 산발적이었다. 이 패턴에 대한 그의 설명은 모호하고 일관성이 없어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그녀의 관심은 가넷 옆에 박힌, 작은 무색의 돌들로 옮겨갔다. “그리고 이것들이 진짜 다이아몬드인가요?”

“제가 당신을 위해 고른 보석은 가넷이에요, 밀드레드. 작은 장식이 다이아몬드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필립은 자신의 상징적인 선택이 눈에 띄지 않게 된 것에 실망하며 투덜거렸다.

밀드레드가 집요하게 물었다. “그러니까 진짜라고요?”

그는 한숨을 쉬었다. “네, 맞아요. 하지만 작은 조각들은 비싼 게 아니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입가에 미소를 머금으며 덧붙였다.

“아니면 실망했나요?”

“뭘, 그냥 가격이 궁금했을 뿐이라고요.” 그녀가 쏘아붙였다.

“선물 가격 물어보는 건 좀 실례 아녜요?” 필립은 장난스럽게 어깨를 으쓱했다. “솔직히 말하면 기억도 안 나요.”

사실, 그의 선물 주기는 되풀이되는 사건이었다. 그들은 항상 고품질이었고 일부는 사치스럽게 비쌌다. 그는 사권 지 한 달 반 만에 합쳐서 그녀의 한 달 수입보다 더 값이 나가는 선물들을 줬었다. 그녀는 당황했지만, 그가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결혼을 암시하지 않는다는 것이 분명해지자 그녀는 흔쾌히 받아들이게 되었다. 필립은 그저 그녀의 행복을 즐기는 것처럼 보였고 밀드레드는 공짜를 거절할 사람이 아니었다.

“하지만 이런 비싼 선물을 그렇게 자주 줘도 정말 괜찮겠어요?” 밀드레드는 머뭇거리는 어조로 물었다. “그러니까 이미 했던 얘기라는 건 아는데, 여전히 걱정이 돼요.”

그는 웃었다. “젊은 바리스타가 걱정해 주지 않아도 될 만큼 별고 있어요.”

“글쎄, 꽤요.” 밀드레드는 필립의 아파트 주변을 두 눈으로 바라보며 태연하게 동의했다. 그녀가 일했던 카페 근처에 위치한 침실 한 개짜리 아파트. 아주 넓다고 할 수는 없지만 결코 좁지 않았다. 그게 중요했다. 런던에서는 기초적인 생활 수준을 타협하지 않는 거주지가 특권이었다.

밀드레드는 일련의 질문을 중단하기로 결정하고 조용히 목걸이를 그녀의 목에 걸었다. 펜던트를 조정하기 위해 체인을 가볍게 잡아당기며 그녀가 물었다. “어때요?”

접시에 담긴 볶음밥을 막 손질을 마친 필립이 고개를 돌리자 순식간에 얼굴이 환해졌다. “정말 예뻐요, 밀드레드.” 그러고선 그는 쾌활하게 말했다. “그리고 저녁이 준비됐어요!” 그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볶음밥 한 접시를 식탁으로 옮겼다.

밀드레드는 그것을 그녀 앞에 놓으면서 자신이 먹을 음식을 가져오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또, 사실 그녀는 명시적으로 그를 초대하거나 그에게 1인분을 퍼주지 않는 한 그가 먹는 것을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았다. 그는 무엇을 하고 싶은 걸까?

그녀의 시선을 알아차린 필립은 안심시키는 미소를 지었다. “제 걱정은 말아

요. 특별히 배가 고프지는 않아요.”

“필립, 주로 뭘 먹어요?” 밀드레드가 물었다. “우리가 함께 있을 때 몇 번 베어 무는 것만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어요. 제가 안 보는 곳에서 무슨 비밀 요리를 즐기고 있나요?”

필립은 아무렇지도 않게 어깨를 으쓱하며 그녀 맞은편 의자를 끌어내 앉았다. “아이러니하게도, 전 실제로 제 요리가 요리한 걸 먹지 않아요.”

“하지만... 당신은 요리를 좋아한다고 말하지 않았나요?”

“네, 그래요.” 필립이 인정했다. “하지만 배가 고프는 동안 요리를 해본 적이 있나요? 꽤 지루해요. 하지만, 내가 준비한 음식을 다른 사람이 맛있게 먹는 것을 보는 것? 그건 정말 기쁜 일이죠. 그것이 내가 우리 관계를 그렇게 높이 평가하는 이유의 일부예요. 전에는 그런 기회가 없었거든요.”

그의 대답에 그녀는 잠시 조용히 생각에 잠겼다가 이상한 일을 떠올렸다. 그녀가 물었다. “제가 처음 여기 왔을 때 부엌이 그렇게 비어 있었던 이유가 그거였나요? 요리 도구도, 냉장고도, 심지어 머그컵도 없었잖아요. 전 제가 어떤 로맨스 소설 주인공의 황량한 아파트에 들어갔다고 생각할 뻔했어요. 사람이 사는 것 같지도 않은 그런 곳 말이죠.” 그녀는 킬킬 웃었다.

그녀의 말에 필립은 약간 움찔하는 것 같았고, 그의 미소는 긴장되었다. “아, 글썄, 전에 말했듯이, 그 당시에 제 집은 수리 중이었어요.”

밀드레드는 어떤 종류의 수리를 하면 집에서 킵까지 없어지게 되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냥 넘기기로 했다.

“어쨌든, 만약 당신이 요리한 것을 먹지 않는다면, 당신은 실제로 무엇을 먹나요?” 그녀가 계속했다.

필립은 그녀에게 납득할 수 없는 대답을 하면서 눈을 굴렸다. “단백질 바, 대부분.”

“흐응, 단백질 바?” 밀드레드는 그를 위아래로 훑어보았고, 그녀의 시선은 그의 빈약하지는 않지만 근육질은 아닌 팔뚝에 떨어졌다.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어쩐지, 확신할 수가 없네요.”

필립은 그녀의 대답에 즉시 입을 삐죽 내밀었다. “저기, 전 학자라고요. 저한테 근육까지 요구하는 건 너무 과해요.”

“당신 학자인가요? 몰랐어요.” 그녀가 눈을 깜박였다.

필립은 약간 당황해서 대꾸했다. “글쎄요, 그렇지 않다면, 이 모든 것이 무엇에 관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는 그의 집 주변에서 널리 손짓을 했다.

그녀의 마음은 그의 손짓을 따랐다. 물론, 그의 침실 겸 도서관은 이상하고 신비로운 책들로 가득 차 있었고, 그의 정돈된 거실의 캐비닛에는 똑같이 기괴한 수집품들이 보관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을 증명하는가?

“네, 매우 학술적인 것 같군요.” 밀드레드는 빈정거리며 말했다.

“마법은 정식 학문 분야예요.” 그는 얼굴을 살짝 붉히며 변명했다. “그리고 전 마법 박사 학위도 가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저는 확실히 학자라고 할 수 있어요.”

“진심으로, 필립? 마법 박사?” 밀드레드는 손가락에 밥을 퍼담으며 킁킁거렸다. “나는 당신이 프리랜서 마법사라는 주장에 겨우 납득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호그와트 졸업생? 믿기엔 좀 너무 과해요.”

“절대 농담 아니거든요!” 필립은 항의했다. “물론 호그와트는 없어요. 우리는 대학에서 정규 교육을 받아요.”

“정말 마법이 학문적인 분야라고 믿을 것 같아요?” 밀드레드는 즉시 휴대전화를 꺼내 검색을 시작했다. 놀랍게도, 그녀는 몇몇 오래된 대학들이 실제로 마법 연구에 전념하는 학과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녀는 한숨을 쉬며 피식 웃었다. “좋아, 당신이 이겼어.”

“말했잖아.” 필립은 약간 풀이 죽은 표정으로 투덜거렸다. 필립의 빠진 표정을 알아차린 밀드레드는 기어를 바꿀 때가 되었다고 판단했다.

“알았어, 알았어, 그만 놀릴게.” 그녀는 밥을 한 숟가락 더 떠먹으면서 무시하듯 손을 흔들며 양보했다. “우리 둘 다 외모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더블 침대를 프레임과 매트리스까지 한꺼번에 들어 올렸던 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전 당신이 나약한 사람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그녀의 말에 필립의 얼굴은 순식간에 의기양양한 미소를 띠었다. “글쎄요, 저는 제 순간들이 있어요.”

“다른 인상적인 걸 보고 싶어요? 이것 좀 봐요.” 자신감에 사로잡힌 필립은 기회를 잡기로 결심했다. 그는 얼른 벌떡 일어나 남은 볶음밥이 담긴 팬을 움켜쥐고 난로 쪽으로 달려갔다.

밀드레드는 필립이 쌀을 공중으로 치솟게 하는 것을 눈을 크게 뜨고 지켜보았다. 불꽃이 팬 위에서 춤을 추었다. 그것은 꽤 인상적인 광경이었다. 밥이 팬을 완전히 놓치고 싱크대로 남김없이 쏙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랬다.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새빨개졌다.

“훌륭한 공연이었어요…” 밀드레드는 칭찬할 만한 것을 찾으려고 노력했다. “남은 음식을 버리는 것 말이죠.”

“네, 물론 제 의도대로였어요.” 그의 기운없는 목소리는 그가 빈정거리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의도했던 척을 하는 것인지 분간하기 어려웠다.

그때 밀드레드는 견잡을 수 없이 웃음을 터뜨렸다. 필립은 여전히 얼굴을 붉히며 소리쳤다. “그런 일은 일어나선 안 됐어!”

필립의 익살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그녀는 눈앞에 있는 특이한 남자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처음에 그는 그녀가 카페에서 그와 대화를 시작하기 전까지는 다소 우울한 모습이었다. 그는 또한 데이트의 초기 단계에서 매우 조심스러웠다. 하지만 그들이 점점 가까워지면서 필립은 그의 유쾌하고 장난기 많고 때로는 유치한 면을 드러냈었다. 그는 쉽게 의기양양했고, 쉽게 낙담했으며, 때로는 짜증나리만치 고집을 부렸다. 대화가 그가 불편해 보이는 주제로 넘어가면, 그는 거의 우스꽝스럽게 서투른 기술로 화제를 바꾸려고 시도하곤 했다.

그는 암묵적으로 서른이 넘는 남자치고는 좀 어색했을 수도 있고, 남자친구로서 견딜 수 없는 순간들을 꽤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어떤 면에서, 그녀를 계속 매료시킨 것은 이 매력과 짜증의 혼합이었다.

지나가는 생각에 웃음이 잦아든 그녀는 그를 위로하기로 결심했다. “볶음밥은 맛있었어요, 필립. 드라마틱한 쇼가 없어도.”

필립은 그 칭찬을 듣고 조금 진정이 되었고, 그의 좌절감을 털어주었다. 양 같은 미소를 지으며, 그는 인정했다. “알다시피, 마늘을 조금 곁들이면 아마 훨씬 더 맛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아아, 제겐 알려지가 있어요.”

그는 킬킬 웃으며 장난스럽게 눈을 반짝이며 덧붙였다. “그리고 음, 보통 저녁 식사 후에 이어지는 일련의 행사들을 고려한다면… 어쨌든 실용적인 이유에서 마늘을 생략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군요.”

밀드레드는 그의 완곡한 표현에 낄낄거렸다. 그들 사이에는 무언의 이해가 있었고, 종종 함께 식사를 하는 친밀한 순간들에 대한 공통된 기대가 있었다.

실패한 공연에서 초점을 돌리기로 결심한 밀드레드는 재빨리 마지막 한 조각의 볶음밥을 떠서 물을 한 모금 마셔 입맛을 가다듬었다. 그녀는 필립에게 가까이 다가가 그의 입술에 부드러운 키스를 했는데, 이는 그를 위로하기 위한 친밀한 몸짓이었다. “볶음밥은 잊어버려요.” 그녀가 그의 입술에 대고 속삭였다.

필립의 대답은 동의의 부드러운 흥얼거림이었고, 그의 관심은 이제 오로지 그녀에게만 쏠렸다. 그들이 키스를 할 때 밀드레드는 필립이라는 독특한 매력을 다시 한번 떠올렸다. 그의 약간 길쭉한 송곳니는 그에게 키스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세부 사항이었다.

\* \* \*

그들의 달콤한 순간이 끝나고 필립은 밀드레드를 집까지 바래다 주었다. 그는 그녀에게 잘 자라고 말하고는 도시의 그림자에 삼켜져 사라졌다.

밀드레드는 방에 들어가자마자 침대에 엎드려 천장을 응시하며 사색에 잠겼다. 필립의 마법 박사 학위에 대한 폭로는 그녀에게 호기심을 갖게 했다.

그들의 3개월간의 관계에도 불구하고, 필립은 그녀에게 여전히 매우 수수께끼였다. 그녀는 아직 그의 정확한 나이도 몰랐다. 그녀는 그가 그 정보를 공유하기를 기다렸지만, 그는 정말 밀어붙일 때까지 그것을 밝히지 않을 것 같았다.

박사 학위 논문은 공개 정보였다. 밀드레드는 아마도 그의 학문적 경력을 파고들어 그에 대해 더 많이 배울 수 있을 것이다. 침대에 편안하게 누운 그녀는 휴대 전화를 들고 온라인 학술 데이터베이스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검색: 필립 젠킨스.

실망스럽게도, 어쩌면 더 흥미롭게도, 그녀는 그의 이름으로 된 최근 논문을 발견하지 못했다. 그녀가 찾을 수 있는 유일한 출판물은 수십 년 전 필립 젠킨스가 쓴 것이었다.

엄밀히 말하면 직접적인 일치도 아니었다. 퍼스트 네임과 라스트 네임이 같았지만, 이 오래된 논문의 저자는 자신의 퍼스트 네임이 아닌 미들 네임으로 논문



을 출판했다. 공평하게 말하자면, 밀드레드는 필립의 중간 이름을 몰랐다.

출판 날짜에도 불구하고, 그 발견은 그녀를 설득력 없는 생각으로 이끌었다. 만약 필립이 마법의 수단을 통해 불멸을 성취한 불로의 마법사라면? 만약 그가 사실 그녀의 할아버지만큼 나이가 많았다면 그가 나이를 밝히기를 꺼리는 것은 이치에 맞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나이 든 젠킨스가 30년 전에 세상을 떠났다는 위키백과 기사를 발견했을 때 이 이론을 빠르게 폐기했다.

유일하게 그럴듯한 설명은 필립이 자신의 학문적 업적을 과장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는 대학원을 중퇴한 걸까? 적어도 마술에 대한 그의 매력과 학자로서의 자부심은 거짓말이 아닌 것 같았다. 아마도 그는 그녀를 감동시키거나 확신시키기 위해 자신의 지위를 장식했을 것이다. 그것은 필립이 할 일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와 마주하는 것은 불필요하게 잔인하게 느껴졌다. 밀드레드는 그의 허세를 지적함으로써 그들의 관계에 불편함을 주고 싶지 않았다. 어쨌든, 그녀는 항상 그가 약간 가식적인 바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정보 수확은 예상보다 적었지만 그녀는 만족했다. 그녀는 그녀의 남자친구에 대한 약간의 비밀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밤의 질문과 계시를 내려놓고 휴식의 고요한 망각을 받아들일 시간이라고 결정했다.

눈꺼풀이 무거워짐에 따라, 특이한 생각이 그녀의 마음속을 스쳤다. 필립이 정말로 고(故) 필립 젠킨스(엄밀히 말하면 ‘필립’ 젠킨스라고 알려져 있지도 않았지만)였다면? 해가 진 후의 그의 특이한 스케줄, 식사 부족, 약간 길쭉한 송곳니, 그리고 마늘 알리지...

그것은 터무니없는 생각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상상하지 않을 수 없었다. 만약 그녀가 그의 학업적 허위를 지적한다면, 필립은 그것을 반박하기 위해 그가 흡혈귀라고 주장하기 시작할 것이다. 그제... 필립이니까. 그 모든 것의 부조리함에 부드러운 웃음이 새어 나왔다.

밀드레드가 마침내 잠에 빠져들자 그녀의 입가에는 미소가 떠나지 않았고, 밤의 야성적인 상상은 꿈의 평온 속으로 사라져 갔다.

## 작가의 말

필립의 성 켄킨스는 다이애나 윈 존스의 영국 판타지 소설 “하울의 움직이는 성”(1986)의 등장인물 하울의 본명에서 따 왔습니다! 저의 하남자 캐릭터 사랑은 하울에게서 나왔을지도 모르겠어요.

## 1-3장. 모종의 뱀파이어 로맨스

그 후 몇 달 동안 밀드레드는 필립과의 관계를 순조롭게 유지해 왔다. 아직은 그렇게 진지한 수준은 아니었고, 그도 그럴 생각은 없는 것 같았지만 그래도 괜찮은 남자친구였다. 적어도 그녀는 그때까지 그렇게 생각했었다.

여느 때와 다름없는 평범한 저녁 데이트, 스테이크하우스에서 밀드레드는 필립 건너편에 앉아 있었다. 지글지글 익어가는 소고기의 달콤한 향기가 주방에서 맴돌았고, 칼날이 부딪히는 소리와 차분한 대화 소리가 식사 공간을 울려 퍼졌다.

준비된 미소를 지닌 상냥한 웨이터가 쟁반을 들고 그들의 테이블에 도착했다. 그는 밀드레드 앞에 육즙이 풍부한 미디엄 레어 스테이크를 내놓았고, 대조적으로 필립에게는 거의 피가 똑똑 떨어질 것처럼 보이는 레어 스테이크를 제공했다.

“와, 맛있겠다.” 밀드레드는 미소를 지으며 감탄했다. 그녀는 성급하게 식기를 집어들었고, 그 탓에 나이프와 포크가 서로 부딪혔다. 포크에 튕겨나온 칼이 그녀의 손가락을 뚫었다. 손가락에서 피가 흘렀다. “아야...”

갑자기, 필립의 안색이 이상한 분노에 사로잡힌 것처럼 변했다. 그의 눈이 손가락에 묻은 핏방울을 주시했다. 그녀가 미처 반응하기도 전에 그는 그녀의 손을 사납게 낚아채 피가 흐르는 손가락을 빨았다. 그의 뺨이 달아올랐고, 그의 눈은 황홀감에 반쯤 감겼다. 그녀는 혼란과 당혹감으로 얼어붙었다. 섬뜩한 정적이 그들을 에워쌌다.

이어 그의 송곳니가 의도적으로 더 많은 피를 짜내기 위해 상처를 물어뜯었다.

고통이 엄습하자 그녀가 비명을 질렀다.

“악!”

그들을 묶었던 주문이 산산이 부서졌다. 즉시 필립은 당황한 얼굴로 물러났다. 그는 너무 창백해져서 거의 시체처럼 보였다.

“전, 그러니까… 혹시 그거 알아요… 어, 침이 소독 효과가 있다는 걸?” 그는 신경질적으로 웃으며 말을 더듬었다. “그래, 바로 그거야! 천연 방부제라고요, 정말로. 그냥 상처를 치료하는 걸 돕는 거예요. 과학이죠…”

그의 말은 점점 사라지고 변명은 그 본인의 귀에도 공허하게 들렸다. 밀드레드는 혼란과 충격이 뒤섞인 표정으로 그를 쳐다보기만 했다.

“또… 방금 생각났는데.” 그가 갑자기 테이블에서 일어나며 불쑥 말했다. 의자가 바닥에 부딪혀 시끄럽게 굵혀 주위의 테이블들로부터 시선을 끌었다. “급한 일이 생겼어요. 절대 미룰 수 없는 일. 정말 정말 미안해요, 밀드레드.”

그와 함께, 그는 테이블 위에 지폐 몇 장을 던지고 스테이크하우스를 거의 뛰쳐나갔고, 나가는 길에 웨이터를 거의 넘어뜨릴 뻔했다.

“뭘… 뭘었던 건데?” 홀로 남겨진 밀드레드는 여전히 따가운 손가락을 내려다 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밀드레드는 스테이크를 천천히 씹으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엽기적인 사건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식욕은 완전히 줄지 않았다. 오래된 농담이 그녀의 마음속에 다시 떠올랐다. 그는 흡혈귀일까?

물론, 더 합리적인 설명이 있을 것이다. 아마 모종의 피 페티시였을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직관은 고집스럽게 그 이상한 가설에 매달렸다. 따라서, 그녀는 그 터무니없는 생각이 검증할 가치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결정했다.

다음날, 아마도 필립이 좀 진정하고 일련의 변명을 꾸며냈을 때, 밀드레드는 그의 끝없는 사과를 받기 시작했다. 그의 변명은 여전히 이치에 맞지 않았지만, 밀드레드는 개의치 않았다. 대신, 그녀의 관심은 곧 제안할 것에 대한 그의 반응에 있었다.

“놀이공원?” 필립이 되물었다.

“네, 하루 종일요. 아침부터 밤까지. 물론, 일기예보에 따르면, 날씨가 가장 좋은 날에만.”

이것은 그녀의 시험이었다. 밀드레드는 그가 무언가를 인정할 때까지, 정말로, 그를 햇빛 속으로 밀어붙일 생각이었다.

그러나 그녀의 예상과는 달리 필립은 흔쾌히 승낙했다. 약속한 날이 왔고, 예상대로 토요일은 아름다운 날씨로 밝아왔고, 필립은 조금의 불편함도 없이 역에 나타났다.

필 기대했던 걸까? 약간 실망했지만, 사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데이트를 즐기기로 마음먹고 그의 팔에 팔짱을 꼈다.

놀이공원에서 밀드레드와 필립은 활기찬 분위기를 느끼며 공원을 돌아다녔다. 사람들이 놀이기구와 놀이기구를 즐기면서 분주히 뛰어다니자 웃음과 수다가 공기를 가득 채웠다. 필립은 약간 지친 것처럼 보였지만 밝은 태양 아래서 잘 지내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들은 머리띠를 파는 노점에서 잠시 멈추었다. 그녀의 시선은 귀여운 암사자 귀를 가진 머리띠에 떨어졌다. 밀드레드는 그것을 집어 머리 위에 올려놓고 옆에 걸려 있는 거울 쪽으로 몸을 돌렸다. “나 어때요, 필립-”

날이 저물자, 그들은 근처의 호화로운 관광 호텔로 물러났다. 크리스털 샹들리에와 웅장한 계단이 입구를 장식했다.

로비에 인접한 주류 판매점을 발견한 밀드레드의 마음에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필립을 위한 마지막 시험이었다. 햇빛이 그를 괴롭히지는 않았지만, 그녀는 심지어 전설 속에서도 일부 흡혈귀들은 대낮에 걸을 수 있다고 회상했다.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더 대담한 테스트였다. 의식이 없어 보이는 여자에게 그는 어떻게 반응할까?

“우리 방을 찾아요, 곧 합류할게요.” 그녀가 그에게 말했다.

가게에서 그녀는 레드 와인 한 병과, 그와 비슷한 색의 포도 주스를 산 다음 로비 화장실로 향했다. 일단 안에 들어간 뒤, 대부분의 와인을 싱크대에 조심스럽게 버리고 주스로 병을 채워 와인의 향과 색상을 그럴듯하게 보존했다.

밀드레드는 손에 든 ‘와인’ 병을 들고 그들의 방으로 들어가 대담한 미소를 지으며 선언했다. “한번 취해보려고요.” 그녀는 가짜 와인을 한 잔 가득 따르고 가짜 열정으로 그것을 마셨다. 한 잔 한 잔, 그녀는 취해서 똑바로 서 있지 못할 것

처럼 보일 때까지 연기를 계속했다.

그녀는 필립의 습관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결코 술을 마시지 않았다. 적어도, 실제로는 아니었다. 그는 언제나 들이키는 시늉을 할 뿐이었기에, 그녀는 그가 자신의 속임수를 알아채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실제로, 이번에 그는 자기 잔에 와인을 따르려고 하지도 않았다.

마침내, 밀드레드는 자제력이 부족한 척하며 침대 위에 쓰러졌다. 그녀는 눈을 가늘게 뜨고 필립을 지켜보았다.

“아, 밀드레드, 당신 오늘 나를 너무 힘들게 했어요.” 필립은 약간의 즐거움을 담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는 조심스럽게 그녀를 좀 더 편안한 자세로 조정하고 이불을 덮어 주었다. 그의 손가락은 그녀의 호흡이 안정될 때까지 달래는 리듬으로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특별히 수상한 행동이나 예상치 못한 우여곡절은 없었다. 모든 것이 정상이었다. 원래 그래야만 했던 것처럼. 밀드레드는 그의 손길에 긴장을 풀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잠깐 동안이나 몇 시간이 될 수도 있었을 텐데, 거의 잠이 들 지경이었다.

갑자기 날카로운 통증이 그녀의 팔을 관통할 때까지였다.

밀드레드는 필립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조심하면서 눈을 가늘게 떴다. 그는 방금 그녀의 팔에서 뽑은 보족한 핀을 쥐고 있었다. 그가 핀에서 그녀의 피를 빨았을 때, 그의 눈은 감겨 있었고, 순전히 행복한 표정이 그의 얼굴을 물들였다. 그것은 그들이 스테이크하우스에서 보낸 저녁을 섬뜩하게 연상시켰다.

등골이 오싹했다. 그녀의 마음이 빙글빙글 돌았고, 잊혀진 회상이 그녀를 엄습했다. 머리띠 가판대. 거울. 바로 오늘 일어난 일이었다.

밀드레드가 암사자 머리띠를 하고 거울을 향해 돌아섰을 때, 필립은 그녀 바로 뒤에 있었다. 그의 모습이 그 거울에 비쳤어야 했다. 하지만 아무것도 비치지 않았다.

당황한 그녀는 뒤로 돌았고 필립은 그녀를 끌어안았다. 그의 가슴이 그녀의 숨소리를 막았다. 그 순간, 그녀는 그의 심장 박동 소리를 들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돌이켜보면, 그들의 가까운 만남 내내 그녀는 단 한 번도 그 소리를 들은 기억이 없었다.

끔찍한 공포가 그녀를 사로잡았을 때, 그가 속삭였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잊어버려.”

그리고 그녀는 그렇게 했다. 그녀는 사실 그가 그녀의 팔에 핀을 찔러 그녀를 현실로 돌아오게 할 때까지 그 모든 것을 잊고 있었다.

밀드레드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숨을 쉬지 않고 고동치는 심장을 진정시키려고 애썼고, 깨어 있는 기색을 조금도 드러내지 않기를 기도했다. 상황이 현실로 다가오자, 더 이상 그것을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의 남자친구 필립은 흡혈귀였다.

\* \* \*

다음날, 밀드레드는 늘 그랬듯이 카페의 익숙한 경계로 돌아갔다. 씩씩한 아이러니가 느껴졌다. 흡혈귀와 데이트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해도 그녀의 삶이 갑자기 고딕 소설이 되지는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커피콩을 갈고, 우유에 거품을 내고, 손님을 상대해야 했다.

잠시 휴식을 취하는 동안, 그녀는 샌드위치를 베어 물며 기계적으로 씹었고, 그녀의 시선은 휴대폰에 고정되어 있었다. 커피머신의 시끌벅적한 리듬과 손님들의 수다가 묘하게 위안이 되는 배경을 제공했다.

그녀는 고(故) 필립 젠킨스, 아니 하워드 젠킨스(기사 제목에 따르면)에 대한 위키백과 기사를 읽고 있었다. 그는 필립과 같은 이름의 학자로 그녀가 그의 박사 학위를 조사하기로 결정했을 때 발견했다.

그녀의 필립이 정말로 30년 전에 죽은 젠킨스와 같은 사람일 수 있을까? 밀드레드는 확신하지 못했다. 하지만 우연의 일치는 기묘했다. 그의 이름으로 출판된 유일한 박사 학위 논문은 작고한 젠킨스의 것이었다. 필립이 죽은 사람이 분명해진 지금… 그것은 조사할 가치가 있었다.

‘필립 하워드 젠킨스(1946년 5월 26일 - 1988년 12월 22일)는 마법과 현실의 교차에 대한 연구를 전문으로 한 영국의 학자이자 마법학 교수였다...’

그는 꽤 영향력 있는 학자였던 것 같았다. 비록 심장마비로 이른 시기에 사망했지만… 그게 그를 흡혈귀로 만들었을까? 그리고 와우, 그에겐 심지어 아내와

말도 있었다.

밀드레드는 첫 데이트에서 그녀가 그에게 결혼했냐고 물었을 때를 떠올렸다. 그의 말이 그녀의 마음속에 메아리쳤다. ‘전 결혼반지를 빼고 다른 여자들과 수다 떠는 부류가 아니에요.’ 아마도, 그는 기술적으로 거짓말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결국 죽음이 그들을 갈라놓았다. 비록 그가 죽은 사람이었지만.

죽은 사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녀에게 있어 그는 약간 신비롭고 마술적인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심할 여지 없이 살아있는 남자였다. 그는 자신이 마법사라고 주장했다. 왜 그녀가 그를 의심했어야 했을까? 그녀는 커피를 속이는 ‘마법’에 대한 필립의 열정적인 설명을 떠올렸다. ‘어렵지 않아요. 사실 방법만 알면 당신도 할 수 있어요…’ 실제로 그는 마법사였다. 죽은 마법사. 슬픔의 괴로움이 그녀를 엄습했다.

“괜찮니, 밀드레드?”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그녀의 사색을 가르고 있었다. 생각에 잠겼던 밀드레드는 동료 바리스타 에밀리가 자신에게 가까이 다가왔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

“아무것도. 그냥 생각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 밀드레드는 걱정을 떨쳐버리려고 애쓰며 대답했다.

에밀리는 납득이 가지 않는 표정이었지만 그래도 화제를 돌렸다. “있지, 필립하고는 어떻게 되고 있지?”

당황한 밀드레드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 질문은 무해하고, 심지어 다정하기까지 했지만, 그녀에게는 지뢰밭에 발을 들여놓은 것처럼 느껴졌다.

“있잖아, 에밀리,” 그녀는 말을 생각하면서 머뭇거리면서 시작했다. “넌 나보다 여기서 더 오래 일했고, 필립은 그때도 단골이었지? 혹시… 거슬리거나 이상한 점은 없었어?”

에밀리는 아랫입술을 깨물면서 멀어져 가는 시선으로 잠시 곰곰이 생각하는 것 같았다. 그러자 그녀는 마치 기회를 기다렸다는 듯이 머뭇거리면서도 웬지 간절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다.

“네가 여기서 일하기 전에, 네 자리에선 밥이라는 사람이 일했어. 그리고 필립은… 글썄, 그는 그때도 우리에게 기억에 남는 사람이었지. 알잖아, 그 빈 컵 주문하고, 매일 오는 거.”



“어느 날 밤, 퇴근할 때, 난 필립이 — 그때는 그의 이름이 필립이라는 것도 몰랐지만 — 밥에게 키스하는 걸 봤어. 깜짝 놀랐지.” 그녀는 변명하듯 덧붙였다.

“내 말은, 밥하고 필립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었는지 전혀 몰랐거든.”

“다음 날, 밥은 출근하지 않았어. 아프다고 했어. 내가 본 것 때문인지 궁금했어… 밥은 그 후에도 계속 일을 빠졌어. 한편 필립은 평소처럼 계속 모습을 드러냈지.”

“일주일 후에,” 에밀리는 거의 속삭일 정도로 목소리를 낮추며 말을 이었다. “우리는 밥이… 음, 세상을 떠났다고 들었어.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몰라, 우린 그렇게 가깝지 않았거든. 그리고 필립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계속 여기에 왔어.”

차가운 공포가 밀드레드의 등줄기를 타고 올라왔다. 퍼즐 조각들이 소름 끼치는 그림으로 합쳐지고 있었다.

에밀리는 어색한 웃음을 흘리며 살짝 어깨를 으쓱했다. “이상한 이야기이지? 너한테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몰랐어. 그게… 음, 좀 사생활 침해가 될 수도 있잖아? 하지만 그건 그냥… 정말 이상했어. 내가 일을 불편하게 만든 건 아니지? 내 말은… 무슨 말인지 알잖아.”

하지만 필립의 성적 취향에 대한 폭로는 밀드레드에게 중요한 게 아니었다. 중요한 건, 밥의 죽음이 무작위적이고 불행한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그는 흠혈귀 필립의 희생자였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다음은 그녀일까?

“말해줘서 고마워.” 마침내 밀드레드는 목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는 듯 속삭였다. “그건 걱정하지 마. 처리해야 할 일이 많지만 알아야 했어.”

에밀리는 약한 미소를 지으며 직무로 돌아갔고, 밀드레드는 샌드위치의 마지막 조각을 입 속에 던져넣었다. 휴식 시간이 끝나가고 있었다.

밀드레드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었다. 모든 것을 끝낼 시간이었다.

## 작가의 말

필립이 밀드레드의 팔을 핀으로 찔러서 피를 흘리는 장면은 무려 드라큘라보다 60년도 전에 출판된 초기 흡혈귀 문학, 테오피일 고티에(Théophile Gautier)의 “죽은 연인(La Morte amoureuse)”(1836)의 오마주입니다. 너무 아름다운 장면이어서 오마주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밥은 문자 그대로 필립의 밥이었습니다. (웃음) 원래 밥은 어디까지나 임시 이름이었고, 나중에 빅티나 뭐 그런 거로 바꾸려고 했었는데, 베타 리더분께서 이걸 지적하신 뒤로는 밥보다 더 적절한 이름이 있을 수 없단 걸 깨달았어요.

## 1-4장. 모종의 뱀파이어 로맨스

밀드레드는 아파트에서 나오자 초조한 기대감으로 가슴이 뛰었다. 저녁 공기는 따뜻했고, 거리에는 싱그러운 봄꽃 향기가 풍겼다. 그녀는 필립을 만나기 위해 공원으로 향하면서 마음속에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길을 정했다.

일주일 내내, 그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며, 의심하지 않는 여자친구 역할을 했다. 그녀는 자신의 내면을 용수철처럼 휘감고 있는 공포를 결코 드러내지 않고 수다를 떨며 미소를 지어 왔었다. 하지만 그와, 즉, 흡혈귀와 맞서야 할 때가 왔다.

그들의 만남 시간은 언제나처럼 일몰 직후로 정해졌다. 5월 초순이라 저녁 8시가 넘은 시간이었다. 그럼에도 여전히 주말의 공원은 약간 봄볕다. 가족들은 포근한 날씨를 즐겼고, 커플들은 손을 잡고 산책했으며, 아이들은 풍성한 꽃이 핀 나무 주변에서 서로를 쫓아다녔다.

“안녕, 밀드레드.” 필립은 부드러운 환영의 목소리로 그녀를 반겼다. 그의 실루엣은 퇴색하는 태양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안녕 필립,” 밀드레드는 굳은 미소로 대답했다. “산책할까요?”

밀드레드는 앞장서서 그를 장미 정원으로 안내했다. 그녀는 흡혈귀들이 장미를 거북해 한다는 신화가 사실인지 아닌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그녀는 그것을 이점으로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랐다.

장미 정원은 색과 향기의 불협화음으로 만개했다. “장미꽃이 예쁘게 피었네요, 안 그래요, 필립?” 밀드레드가 물었다.

“그러게요.” 필립이 대답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왠지 불안한 기색을 띠고 있었다.

그들은 계속 걸었고, 사소한 잡담도 주고받았다. 평화롭긴 했지만 밀드레드가 더 잘 알고 있었다. 그녀의 차분한 얼굴 아래에서 폭풍이 일고 있었다.

결국 밀드레드는 염두에 두었던 특정한 장미 덤불에 도달했다. 덤불 속에 숨겨 둔 물건들을 묶어 둔 리본 손잡이가 삐져나와 있었다. 그녀는 주위를 힐끗 보며 걸음을 멈추었다. 다행히도, 주변에는 여전히 몇몇 사람들이 있었다.

“필립, 언제 한 번 당신의 마법 박사 학위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었죠, 기억나요?” 밀드레드는 날씨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처럼 경쾌한 목소리로 물었다. “궁금해서 한번 찾아 봤었어요.”

필립은 뒷목을 문지르며 멧쩍게 웃었다. “아, 그거.” 그가 말을 시작했다. “당신이 최근 기록에서 제 이름을 찾지 못한 이유는, 음, 제가 실제로 졸업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인생이 방해가 됐어요, 알잖아요...”

밀드레드는 아이러니가 스며드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쓰게 하, 웃었다. “아, 필립, 전 당신을 알아요.” 그녀가 냉소적으로 말했다. “만약 당신이 진정으로 중퇴자였다면, 지금쯤은 어떤 거창한 이야기를 만들어 냈을 것이다. 저는 당신이 수십 년 전에 당신의 이름으로 출판된 논문이 죽은 지 오래된 작가에 의해 실제로 당신의 것이라고 저를 설득하는 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신, 당신은 그것을 인정했고, ‘거짓말’을 인정했죠. 그건 당신답지 않아요. 그래서, 그건 분명히-”

그녀는 재빨리 앞에 있는 장미 덤불 꼬트머리의 리본을 붙잡고 전에 숨겨 두었던 십자가와 마늘 뿌리들을 꺼냈다. “당신이 부인한 그 주장이 바로 당신이 숨기려는 진실 아닌가요, 켈킨스 박사님?”

얼굴이 창백해진 필립은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다. 그의 눈이 휘둥그레졌지만, 감히 그녀가 들고 있는 십자가를 쳐다보거나 힐끗 쳐다볼 수는 없는 것 같았다. 그의 얼굴이 일그러져 절망적인 표정이 되었다. 그는 씩씩하게 증언거렸다. “피할 수 없는 일이란 걸 알고 있었어.” 그럼에도 그는 항의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진심으로? 내가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고집하지 않았던 걸 증거라고 정말로 주장하는 거야? 내가 정말 그 정도로 바보라고 생각해?”

“물론 아니지.” 밀드레드는 칼날처럼 날카로운 목소리로 쏘아붙였다. “하지만 거울에 비치지 못하고 심장이 뛰지 않는 사람이 밤에 몰래 내 피를 빨고 있었다면 그건 증거가 돼. 그리고 어 맞아, 그거랑 별개로, 당신은 바보야.”

“그게 더 말이 되는군. 그 놀이공원에 가는 거에 동의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필립은 한 손으로 머리를 빗으며 한숨을 쉬었다. “밀드레드, 다 설명할 수 있어. 하지만 그 전에…” 그는 밀드레드의 손에 들린 십자가와 마늘을 가리키며 불편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다. “그것들 좀 먼저 내려놓을 수 없을까? 대화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거든.”

“왜?” 밀드레드는 물건들을 꼭 잡으며 비웃었다. “내 기억을 지우고 다시 날 조종하려고? 그 머리띠 가판대에서 했던 것처럼?”

필립은 그녀의 말에 눈에 띄게 움찔했다. “자, 사소한 사실보다 더 중요한 일에 집중하도록 돕는 것을 조작이라고 할 수는 없어.” 그는 달래는 몸짓으로 두 손을 들었다. “내가 진심으로 당신을 조종하려 했으면 당신은 나한테 이렇게 맞설 생각조차 못했을걸.”

그 말은 물론 밀드레드의 분노의 불길을 불러일으킬 뿐이었다. 그녀는 목소리를 높이며 필립에게 대꾸했다. “그래, 정말 자랑스러우시겠어! 내가 그 말을 듣고 도 시키는 대로 할 것 같아?”

“좋아, 그건 최선의 변명이 아니었어.” 필립이 인정했다. “내 말은, 정말로 당신 기억을 지울 생각이 없단 말이었어. 일이 여기까지 온 걸 보라고. 그러니까… 제발, 내려놔.”

그의 마지막 요청은 이상한 무게를 가지고 있었다. 그의 회색 눈은 밀드레드의 영혼을 파고드는 강렬함으로 빛났고, 그의 강력한 의지는 독처럼 그녀에게 스며 들었다. 두려움과 꺼림칙함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압도적인 충동을 느꼈다. 그녀는 마침내 항복했고, 십자가와 마늘을 움켜쥐었던 손가락이 느슨해졌다. 그것들은 둔탁한 쿵 소리를 내며 땅에 떨어져 그녀를 무방비 상태로 만들었다. 불리한 상황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포가 그녀를 휩쓸었다.

위협을 무력화한 후 필립은 눈에 띄게 긴장을 풀었다. “너무 강압적으로 굴어서 정말 정말 미안해.” 그가 사과했다. “하지만 그냥… 그런 것들을 도무지 참을 수가 없거든.”

그는 어깨를 축 늘어뜨린 채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다. “좋아, 상황을 정리해 보자고. 우리 둘 다 진실을 알고 있지만, 계속하기 전에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하지… 난 흡혈귀야.”

“그럼, 당신이 정말로 수십 년 전에 죽은 그 하워드 켄킨스야?” 밀드레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위키백과 기사가 구글 검색 결과 첫 페이지에 올라오는 학자?”

그 이름을 거론하자 필립의 턱이 긴장되어 눈이 어두워졌다. “글쎄, 단순히 그렇다고 대답하기엔 좀 더 복잡한 문제지만, 시제를 고친다면… 응, 그랬어.”

“아내와 딸이 있던 하워드 켄킨스 박사.” 그녀가 경멸하듯 말했다.

“있었어.” 그가 다시 시제를 고치며 목소리가 더 작아졌다. “죽음이 그녀와 날 갈라놨어. 난 완전히 자유로운 남자라고.”

밀드레드는 눈을 굴렸다. “물론 당신이라면 그렇게 말하겠지. 하지만 당신이 나한테 전적으로 정직했던 척하지는 말자고.”

그녀의 말에 필립의 창백한 얼굴에 홍조가 슬그머니 떠올랐고, 그는 칭얼거렸다. “하지만 젊어 보이니까 상관없다고 했잖아…”

“당신의 나이가 안 중요하다고 했지, 과거가 안 중요하다고 한 적 없어.” 밀드레드는 짜증스럽게 쏘아붙였다. “내 말을 왜곡하지 마.”

그 시점에서 상황의 불합리함이 그녀를 엄습했다. 여기서 그녀는 흡혈귀 남자 친구와 그의 부정직함에 대해 논쟁하고 있었다. 필립의 딱한 반응에 짜증을 떨쳐버린 그녀는 그들의 대화의 암울한 현실로 돌아왔다.

“본론으로 들어가자, 필립. 사람들을 해치고 죽였어?”

우스꽝스럽게도 필립은 이 주제에 대해 덜 불편해 보였다. 그는 자세를 바로 하고 그녀의 시선과 정면으로 마주쳤다. “그래, 보통은. 부인하지 않을게. 하지만 밀드레드…” 필립은 재빨리 덧붙였다. “당신을 결코 다치게 한 적은 없어.”

“어떻게 감히 그 호텔에서 내 피를 빨아먹고 나를 해친 적이 없다고 말할 수 있어? 그리고 스테이크하우스 일은 또 뭐였는데?” 밀드레드는 반격했다.

필립은 그녀의 분노에 움찔했지만, 그는 자신을 방어하려고 노력했다. “스테이크하우스 사건은 통제 바깥의 일이었고, 호텔에서 바늘로 좀 찌른 건 해로울래야 해로울 수 없어. 당신이 날 태양 밑으로 끌고 갔고 난 종일 잠도 못 잤고 아무 것

도 못 먹었어. 미안해, 미안한데, 내가 피를 몇 방울 훔아 먹었다고 비난할 수는 없어. 정말로 내가 무슨 해를 끼쳤는데?”

“물론, 내가 기억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신을 탓할 수 없겠지.” 그녀는 빈정거리며 대답했다. “특히 당신은 내 기억을 건드리는 버릇이 있으니까.”

“난 아무것도 안 했어!” 그의 목소리에 절망감이 슬며시 떠올랐다. “무슨 수로 부재를 증명할 수 있을까? 봐 봐, 당신은 완벽하게 건강해. 난 이 상황을 피하기 위해 최소한의 노력만 했을 뿐이야… 그게 다야.”

“하기야 당신의 모든 희생자들은 완벽하게 건강했겠지.” 밀드레드는 목소리를 높이며 말했다. “당신이 그들을 죽이기 전까진. 필립, 말해 봐, 밥처럼 날 죽일 계획이야?”

“당신은 그들과 달라!” 필립은 방어적으로 소리쳤고, 그러자 찡그린 얼굴이 그의 미간을 찌푸렸다. “근데… 밥이 대체 누구데?”

“여기까지 와서 모른 척할 거야?” 그녀가 쏘아붙였다. “밥, 나보다 먼저 카페에서 일했던 바리스타. 에밀리한테 들었어. 당신이 그에게 키스하는 것을 그녀가 봤고, 일주일 후 그는 죽었어. 그게 우연이었다고 주장할 수는 없잖아?”

필립은 정신적인 목록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것처럼 눈을 가늘게 떴다. 그의 표정은 잠시 후 맑아졌지만, 차갑고 경멸적이었다. “아, 그 사람. 알겠어.” 마침내 그가 말했다. “반년 전 희생자의 이름을 어떻게 기억하라고?”

그의 목소리에 담긴 싸늘한 무관심이 스며들면서 밀드레드의 숨이 목구멍에 걸렸다. 그녀는 불현듯 눈앞의 남자가 차갑고 오만한 포식자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묻지 않을 수 없었다. “얼마나 많이 죽였길래 그들을 전부 기억하지 못해?”

“한 달에 셋에서 넷.” 그는 눈에 악의를 번뜩이며 대답했다. “만약 그것이 당신이 원하는 통계라면.”

“그래서, 그 통계는 곧 나를 포함할까? 밥이랑 나랑 다를 게 없지? 아무렇지도 않게 키스를 해주고 나서 내 목을 물어뜯을 거야?” 밀드레드는 이를 악물고 몸을 떨며 물었다.

필립의 표정이 누그러졌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싸늘하게 느껴지던 그의 눈빛이 슬픔의 빛을 띠었다. “잘 들어, 밀드레드.” 그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시작했다.

“밥에게 키스한 건, 그냥… 평소같이 메인 코스 전에 먹는 애플타이저였어. 당신과는 완전히 달라. 도대체 뭘 위해 희생자와 6개월 동안 데이트를 하는데? 온갖 종류의 선물을 주고,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지어내고?”

밀드레드는 필립이 밥을 말 그대로 밥처럼 대하여 무심코 한 말에 혐오감을 억누를 수가 없었다. “그럼 뭘 위해서 그런 건데? 난 더 긴 ‘풀 코스’야?” 그녀의 목소리에서 불신이 똑똑 떨어졌다.

“뭘 위해? 뭘 위해서냐고?” 고통스러운 표정이 그의 얼굴을 스쳤다. “당신과 똑같은 이유!” 그가 외쳤다. “기억해? 너였어! 나한테 먼저 말을 건 것도, 다가온 것도, 데이트하자고 한 사람도 너였어. 뭘 원했는데, 어? 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데이트를 할까?”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는 손에 얼굴을 파묻었고, 그의 어깨는 떨리기 시작했다. 밀드레드는 이 부조리한 상황을 거의 믿을 수 없었다. “올어? 뭘 잘했다고 올어?”

“그냥 평범한 관계를 원했어. 수다 떨고, 껴안고, 키스하고…” 그는 손으로 중얼거렸다. “그런 종류의 ‘키스’ 말고. 그냥… 그냥 평범한 키스.”

필립은 눈이 빨갛게 부어올라 고개를 들었다. “이건 ‘너만이 특별해’ 같은 헛소리가 아니야. 그치만, 젠장, 누구에게나 특별한 누군가가 필요하단 말이야. 그들이 괴물이라고 해도… 아니면 오히려 그들이 괴물이라서.” 그가 훌쩍였다.

“여자한테 ‘반드시 네가 아니더라도 누구든 원했을 뿐’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리 낭만적이지 않아.” 밀드레드가 차갑게 지적했다.

“어쨌든 당신이 특별하거나 뭐 그런 사람이라고 말한다고 해도 안 믿을 거잖아.” 그가 여전히 코를 훌쩍이며 쏘아붙였다. “그리고 난 그렇게 말한 적 없어. 그건 내 생각이 아니야.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나한테 당신이 필요하다는 거야. 특히 당신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밀드레드는 좌절감으로 피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들, 그러니까 크게 소리지르는 커플이 서서 서로에게 고함을 지르고 비난하는 와중 필립은 그의 흐느끼는 소리로 관심을 끌기 시작했다. 가족들은 걸음을 멈추고, 아이들은 눈을 크게 뜨고, 한 커플은 손 뒤에서 속삭이고 있었다. 어처구니가 없었다. 그녀는 공원 한 가운데에 서서, 차이는 것을 두려워하며 훌쩍이는 살인 괴물과 말다툼을 하고



있었다. 목격자들의 존재에 감사해야 할까? 하지만 그녀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그의 울음을 멈추게 하는 것이었다. 너무 창피했다.

“정 삶의 공허함을 견딜 수 없으면 먼저 살인을 그만두는 게 좋을 거야, 필립.” 그녀가 제안했다.

“아무것도 모르면서! 선택의 여지가 있었다면 처음 기회가 주어졌을 때부터 이 저주받은 존재를 끝냈을 거야!” 필립이 징징댔다. “난 그냥… 함께 하는 평범한 무언가를 원했을 뿐이야. 우리 그동안 좋았잖아, 응?”

“드라마 퀸 노릇은 그만둬.” 밀드레드가 쏘아붙였다. “우리는 악의 본질에 대해 깊은 철학적 논쟁을 하고 있는 게 아니야. 요점은, 당신이 한심하다는 거야. 진심으로, ‘당신이 필요해’? 날 혈당 떨어졌을 때 먹는 비상용 포도당 사탕처럼 대하고 난 후에?”

“하지만 들어봐.” 필립은 필사적으로 대답했다. “결국에는 모두가 죽는 법이야.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인생을 즐기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자기 방어 시도에서 나온, 그의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어리석은 발언이 장미 정원에 울려 퍼졌다. 잠시 침묵이 내려앉았다.

“그게 당신이 나한테 하려는 말이야? 우리가 계속 만나면 날 죽일 수도 있다고?” 그녀의 목소리는 싸늘했다.

“아니, 아니, 아니,” 그는 자신의 실수의 심각성을 깨닫고 말을 더듬었다. “그런 뜻이 아니었어!”

하지만 너무 늦었다. 그것은 밀드레드에게 있어 최후의 결정타였다. 마침내 그녀는 선언했다. “우린 끝났어, 필립. 제발 내 인생에서 나가줘.”

잠시 동안 필립은 움직이지 않는 조각상처럼 보였다. 그녀는 그가 그녀가 머물도록 강요하기 위해 초자연적인 힘을 사용할 것이라고 반쯤 예상했다. 그러나 그 대신, 그는 구멍 난 풍선처럼 주그러들었다. “알았어.” 그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그의 울음은 사그라들었고, 그는 한숨과 흐느낌 사이 어딘가에 있는 소리를 냈다. “그럴 줄 알았어. 언젠가 끝날 줄 알았다고… 젠장, 차였잖아!” 그가 투덜거렸다.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흐른 뒤 필립은 다소 애처롭기는 하지만 마음을 가다듬는

듯했다. 그는 희망에 찬 표정으로 밀드레드를 올려다보았는데, 그의 목소리는 소심하고 유난히 진지했다. “저기, 정말 절박하게 들릴지도 모르지만, 우리 그러니까, 친구로 지낼 수 없을까? 아니면 아는 사람이나 뭐 그런 거? 길에서 ‘안녕’이라고 말하는 사람?”

그녀의 머리에 떠오른 첫 번째 생각은 그에게 꺼지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는 아마 그냥 떠날 것이다.

그러나 또 다른 생각이 그녀의 뇌리를 스쳤다. 그녀 앞에 있던 남자는 한 달에 3명에서 4명의 사람을 죽인다고 인정한 흡혈귀였다. 필립이 혼자 한 짓이었다. 얼마나 더 있을까? 그를 마지못해서라도 동맹으로 두는 것이 최악의 생각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좋아.” 밀드레드가 마침내 말했다. “하지만 나와 내 가족, 친구들을 해치지 않겠다고 약속해야 해.”

필립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이기 전에 그의 선택지를 저울질하는 것 같았다. “약속할게.” 그가 창백한 얼굴에 침울한 표정을 지으며 증얼거렸다.

땅거미가 내린 하늘 아래, 장미 정원 한복판에서 한때 연인이었던 인간과 흡혈귀가 약속의 악수를 나눴다. 그들의 로맨스는 끝났지만, 새로운 불안한 동맹이 맺어져 있었다.

## 작가의 말

필립은 드라큘라의 노골적인 재해석입니다. 생전에는 고결하고 존경받았고, 마법사였고, 또한 죽은 다음에는 꽤 유치한 모습을 보이는, 강력한 흡혈귀. 맞아요, 1-1장의 대사 “전 절대… 커피를 마시지 않아요(I never drink… coffee)”는 영화 ‘드라큘라’(1931)의 그 유명한 대사 “I never drink… wine”의 변형입니다. 심지어 1-2장에서 드러난, 의외로 요리를 잘하는 면모도 드라큘라에서 따온 것입니다.

## 2장. 독특한 의뢰인

런던의 스타일리스트 리타 블레이크는 그녀의 세련된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패션과 색채의 세계에서 등불이 된 그녀의 명성은 세련된 도시 구석구석 너머로 잘 알려진 그녀의 이름으로 멀리서 고객을 끌어들이었다.

어제는 딱딱한 스케줄에 뜻밖의 빈자리가 생겼다. 유명 의뢰인이 다음 날 약속을 막판에 취소했던 것이다. 비록 취소 수수료를 받았지만 하루 종일 예약을 잃는 것은 이상적이지 않았다. 다행히 온종일 스타일링 패키지를 예약한 새로운 의뢰인이 그 자리를 빠르게 채웠다.

새 의뢰인 필립 젠킨스는 자신의 이름과 성별만 제공했다. 일부 클라이언트는 대면 상담에서 모든 것을 수행하는 것을 선호하여 준비 과정을 복잡하게 만들곤 했다. 그러나 항상 적응력이 뛰어난 리타는 잠재적인 문제에 대비하며 예약에 동의했다.

그녀의 사무실 문이 휩 열리더니 젊은 남자가 걸어 들어왔다. 리타의 훈련된 눈은 이미 그의 모습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그는 키가 크고 늘씬했고, 검은 머리와 회색 눈을 가졌다. 그는 매우 격식 있는 양복을 입고 있었지만 손목에 찬 레저용 시계는 그의 나머지 옷들과 충돌했다.

“안녕하세요, 젠킨스 씨?” 리타는 손을 내밀며 인사했다.

“필립이라고 불러주세요.” 필립은 고개를 끄덕이며 악수로 그녀의 몸짓을 되받았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예약을 수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타이밍이 좋으셨어요, 필립.” 그녀가 새 고객에게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자, 시작할까요?”

“사실…” 그가 그녀의 손을 놓으며 대답했다. “먼저 논의해야 할 것이 있어요. 저한테 좀 독특한 문제가 있거든요.”

호기심이 발동하여 리타는 눈썹을 치켜올렸다. “독특하다고요? 전 도전을 좋아해요. 그게 뭔가요?”

그는 아무 말 없이 거울 앞으로 걸어가 그 앞에 우뚝 섰다. 그를 지켜보던 리타는 믿을 수가 없어서 눈을 깜박였다. 그 남자는 거울에 비치지 않았다. 그녀는 그를 보고, 거울을 보고, 다시 그를 바라보았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 그녀의 심장이 쿵쿵 뛰었다.

“그… 거울 반사의 문제…” 그녀는 말하면서 목소리에 공포가 스며들지 않도록 노력했다. “그건 확실히 도전이 될 수 있겠군요… 스타일링에.”

“어떤 추측도 하지 않는 것은 정말 예의 바른 일이에요, 리타.” 그가 웃었다. “하지만 전 당신이 추측을 할 것이라고 예상했어요. 음, 전 흡혈귀입니다.”

그것은 리타가 듣기 두려워하는 확인이었다. 그녀가 제자리에 얼어붙은 채 서 있는 동안 그는 사무실 한가운데 있는 소파에 앉았다.

흡혈귀 의뢰인은 말을 이었다. “저는 약 30년 전에 죽은 중년의 교수였습니다. 이제 전 평범한 젊은이처럼 옷을 입어야 해요. 그리고 어렵잖게 상상할 수 있듯이, 전 현재의 트렌드에 다소 뒤쳐져 있어요. 그게 제 진짜 문제입니다.”

저 멀리 런던의 도시 생활로부터 온 소음만 웅웅거릴 뿐 그들 사이에 침묵이 흘렀다. 리타는 이 새로운 정보를 따라가기 위해 마음이 휘청거리면서 잠시 그를 응시했다. 물론 그녀는 겁에 질려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전문가였고 그는 그녀의 고객이었다. 그것은 그저 다소 독특한 상황에 적응하는 문제였다.

“알겠어요.” 그녀의 표정으로 보아 사실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것이 분명했지만, 마침내 그녀가 말했다. 잠시 후, 그녀는 불안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다. “그럼, 필립, 당신을 젊고 아주 생기있게 만들어 봅시다.”

리타는 간이 부엌으로 가서 평소 고객의 일상에 따라 차를 준비하려고 했다. 그녀는 멍하니 물었다. “우유 아니면 설탕?”

흡혈귀는 말없이 그녀를 쳐다보기만 해서 리타를 공포에 떨게 했다. 그의 눈은 무슨 이해할 수 없는 재미로 반짝거리는 것 같았다.

“아니요, 고마워요.” 필립이 마침내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다. 그제서야 그녀는 숨을 쉴 수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리타는 컵을 따르고 그의 맞은편 자리에 앉았다. 그녀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면서 시작했다. “그래서 필립, 당신은 젊은 남자처럼 옷을 입고 싶다고 말했어요. 어쩌다 그럴 마음이 드셨는지 좀 더 말씀해 주시겠어요?”

필립은 소파에 등을 기대며 시작했다. “글쎄, 제가 자주 가는 카페가 있어요. 거기서 바리스타와 수다를 떨었어요. 매력적인 젊은 여성이죠. 그리고 그녀는 나에게 데이트 신청을 했습니다. 물론 그 아가씨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리고 저는 저에 대해 밝힐 생각이 없습니다.”

리타는 자신도 모르게 흡혈귀와 사귀게 된 여자에 대한 동정심을 억누를 수 없었지만, 그녀는 겨우 한 가지 대답만을 할 수 있었다. “그렇군요.”

“지금까지 전 ‘잠옷’을 입고 카페에 갔어요.” 필립은 양복을 가리키며 말을 이었다. “일어나서 거기서 한 시간쯤 보내고 사무실로 향하는 게 일상이었죠.”

“왜 양복을 ‘잠옷’이라고 부르시는 거죠?” 리타는 상황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그녀의 직업적 호기심을 자극하며 눈썹을 치켜올렸다.

필립은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관에 있는 사람들이 입는 옷인 것 같군요.”

그의 말투는 너무 태연해서 리타가 그의 말을 처리하는 데 잠시 시간이 걸렸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인정했다. “구겨진 양복을 입고 데이트를 할 수는 없을 것 같네요.”

“바로 그거예요.” 그가 열정적으로 대답했다. “중요한 건, 전 파분한 아저씨처럼 보이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의 불합리함이 그녀를 엄습했다. 그곳에서 그녀는 데이트에서 구식으로 보이고 싶지 않은 흡혈귀와 패션 트렌드에 대해 논의하고 있었다. 상황은 우스꽝스러웠고, 그녀는 필립을 사무실에서 쫓아낼 마음이 반쯤 있었다. 하지만 대신에, 그녀는 심호흡을 했고, 그녀가 가장 잘했던 것을 하기 시작했다.

“좋아요, 색깔과 스타일에 대해 논의해 보죠. 현대 패션 트렌드를 염두에 두고 당신에게 가장 어울리는 것을 파악해 봅시다.”

리타는 필립에게 선호하는 것에 대해 묻고 그의 가장 좋은 색상을 분석하는 등 한동안 상담이 이어졌다. 그들은 무엇이 유행하고 있는지, 어떤 스타일이 그의

체격에 가장 잘 어울릴지에 대해 말했다. 필립은 전반적으로 수용적이었고, 때때로 그의 생각과 선호를 제시했다. 그 과정에서 리타는 자신이 흡혈귀를 상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순간적으로 잊을 수 있었다.

상답이 끝났을 때, 리타와 필립은 둘 다 그들이 마련한 토대에 만족했다. 이제 그들이 해야 할 일은 정해진 가이드라인에 맞는 옷을 쇼핑하러 가는 것뿐이었다. …쇼핑하기?

“다음 단계는 동행 쇼핑이죠? 기대되네요.” 필립이 말했다.

“아, 그래요, 동행 쇼핑.” 리타가 대답했다. 공포가 그녀의 마음 한구석을 잡아먹기 시작했다. 그녀는 거울에 비치지도 않는 흡혈귀와 쇼핑을 하러 가려던 참이었다. 그녀는 그의 마음을 바꾸려고 시도했다. “제 생각엔… 아마도 우리는 가상 쇼핑 세션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필립은 그녀를 힐끗 쳐다보더니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제 데이트는 이틀 후예요. 쇼핑은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지 않나요? 제가 가상 쇼핑을 원했다면 그것을 선택했겠죠. 정확한 핏이 필요한데다, 배송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하지만-” 그녀는 항의하려고 했다.

흡혈귀는 약간 길쭉하고 날카로운 송곳니를 드러내며 활짝 웃었다. “당신의 전문성을 믿어요, 리타.”

탈출구가 없었다. 리타는 마지못해 그와 쇼핑을 가기로 동의했다.

놀랍게도, 동행 쇼핑은 그녀가 예상했던 것보다 덜 혼란스러운 것으로 드러났다. 아무도 필립이 거울에 비치지 않는 것을 신경쓰지 않는 것 같았다. 점원들은 그를 평범한 손님처럼 대했고, 리타의 마음은 점점 더 불안해졌다.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필립은 어떻게든 그들의 인식을 조작하고 있었다. 이 깨달음은 그녀의 두려움을 키웠지만, 한편으로 그녀는 안도했다. 그들은 소란을 피우지 않고 쇼핑을 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경험은 초현실적이었다. 리타는 필립이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각각의 옷을 입고 사진을 찍어야 했다. 그녀는 본질적으로 자신을 보기 위해 휴대폰 카메라에 의존하는 남자와 쇼핑을 하고 있었다.

“이 청바지 언제 보여요?” 그는 마른 체격을 강조하는 짙은 색 워싱 데님을 입고 탈의실에서 나오며 묻곤 했다.

그녀는 휴대폰을 들고 사진을 찍어서 그에게 보여주며 대답했다. “색상은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 전체적인 핏이 좀 타이트한 것 같아요.”

가게마다 그들은 이 특이한 쇼핑 루틴을 계속했다. 리타가 옷을 고르고, 필립이 입어보고, 리타가 사진을 찍고, 둘이 함께 결정을 내렸다. 그녀의 전화기의 갤러리가 심령 사진들로 가득 차면서 그들의 쇼핑백의 수도 그만큼 늘어났다.

저녁 여섯 시가 막 지났을 때, 리타는 그녀가 흡혈귀와 8시간을 보냈다는 것을 알았을 때 하늘은 어두운 색으로 물들고 있었다. 그날의 행사들의 긴장으로 그녀는 지쳤지만 침착한 걸모습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들이 필립의 새 옷들로 가득 찬 쇼핑백에 둘러싸인 채 길가에 서 있을 때, 리타는 필립이 하루 종일 햇빛 아래에 있었던 흡혈귀치고는 놀랍도록 생기 넘쳐 보인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 생각에 등골이 오싹해졌다. 그동안 일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두려움을 잊었다. 그러나 상점이 문을 닫기 시작하고 인파가 줄어들자 두려움이 다시 되돌아왔다. ‘그거일까?’ 그녀는 궁금했다. ‘그가 그녀에게 정중한 작별 인사를 하고, 그리고...?’

필립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거의 인적이 없는 거리를 둘러보았다. 그는 말문을 열었다. “리타, 오늘은 정말 특별한 날이었어요. 정말 즐거웠어요.”

“그래요?” 리타는 질식했다. 그녀의 심장은 지금 두근거리고 있었다. 역시 그거일까? 그녀는 정중한 작별 인사에 뒤따를 것이 두려웠다. ‘지금까지 잘 해줬어. 하지만 당신은 너무 많은 걸 알아 버렸지...’

필립은 그녀의 두려움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 같았다. 대신, 그는 점점 줄어드는 빛을 반사하는 회색 눈으로 긴 한숨을 내쉬었다. “사실, 저 같은 부류에겐 낮에 모험을 하는 것은 상당히 불안한 일이에요. 심지어 다른 사람들의 인식을 조작하는 것조차 이례적으로 지치죠.” 그가 인정했다.

“하지만...” 그는 입가에 미소를 띠며 말을 이었다. “새 옷을 사야 했어요. 그리고 낮에 외출을 피할 수 없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이제 제 선택은 옳았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잠시 멈춰 서서 눈을 옷가방 쪽으로 휩 돌렸다가 다시 그녀에게로 돌렸다. “사실, 오늘 당신의 서비스에 너무 만족해서 다시 한번 당신의 서비스를 요청

하고 싶어요. 사랑스러운 바리스타와의 데이트가 잘 되면 말이죠.”

“아니오.” 리타의 대답은 이성적인 생각보다는 본능에 이끌린, 거의 순간적인 것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반응에 놀라 눈을 깜박거렸다. 하지만 그녀는 그녀의 대답을 철회하지 않았다. 그것은 흡혈귀를 다시 보는 것에 동의하는 위험한 전망보다 더 안전하게 느껴졌다.

필립이 킬킬 웃었다. “이해해요.” 그는 경쾌한 목소리를 유지하며 말했다. “하지만 말이죠, 솔직히 당신의 의견은 중요하지 않아요.”

리타가 미처 대답하기도 전에 그는 그녀에게 마지막 장난스러운 윙크를 보냈다. “다음에 봐요!” 그리고는 눈 깜짝할 사이에 한 떼의 까마귀로 변신하고는, 어둑어둑한 하늘 너머로 사라져 버렸다.

놀란 리타는 그가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차가운 안도감이 그녀를 엄습했다. 하루는 끝났고, 그녀의 시련은 끝났다. 그러나 그녀는 포장도로에 흩날리는 깃털들을 힐끗 보면서 흡혈귀와의 거래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불길한 예감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 작가의 말

도시의 하늘을 뒤덮은 떼까마귀 무리는 정말로 무시무시하게 인상깊습니다. 한번 보면 절대 잊지 못할 거예요. 그게 필립의 상징 동물이 떼까마귀가 된 까닭입니다. Crow도 Raven도 아니고 뭔가 애매한 Rook. 하지만 저는 이 까마귀야말로 마왕의 새라고 믿어요.



## 땅거미 질 무렵에

저자: 주유월

발행: 2023년 6월 30일 - 2023년 7월 4일

수정: 2023년 10월 20일 15:14:54

연재처: <https://yuwol.pe.kr/add/>

연락처: 트위터 @JuYuwol